

## Stephan Matthias Lademann

스테판 마티아스 라데만

피아니스트

프로필

스테판 마티아스 라데만은 독일 마이센에서 태어났고 드레스덴 음악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대학 초 피아노를 전공하기 전부터 각 종 연주회에서 피아노반주자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지그프리드 예루살렘과의 공연을 위시해 다이아나 담라우, 시빌라 루벤스, 첸 라이스, 쾨터 그로이스벡, 다니엘라 팔리, 로버트 딘 스미스와 같이 공연을 통해 음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는 세계 음악페스티벌에 많은 초대를 받아 공연했고 오페라하우스, 프랑크푸르트 알터 오페라, 빈 음악협회, 빈 클랑보겐 페스티벌 극장, 슈베르티아데 슈바첸베르그, 라인가우-페스티벌, 솔레스빅-홀슈타인-페스티벌, 키싱저 좀머, 문헨 오페라 페스티벌, 루드빅스부르그 페스티벌, 잘쯔부르그 페스티벌, 쟈페로퍼 드레스덴, 베를린 필하모니, 테아트로 델라 자줄라 마드리드, 뉴욕 카네기홀, 밀라노 스칼라좌등에서 연주를 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을 쌓아갔다.

특히 소프라노 다이아나 담라우와의 성공적인 공연은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되었다. 2008 년 3 월 스테판 마티아스 라데만은 런던의 위그노 홀에서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피아노반주로 그의 첫 데뷔무대를 장식했고 그 이후 2009 년 5 월에 베를린 시립 오페라극장에 협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다이아나 담라우와, 이반 팔라이와 2006 년도 협연한 구스타프 말러의 "소년의 마술피리"는 오리지날 피아노 버전으로 그의 첫 음반을 만들어 토브락크

국제음반협회에서 일등상을 수상했으며 2005 년에 잘쯔부르그 페스티벌에서 다시 담라우와의 리사이틀을 겸한 라이브콘서트를 음반으로 내놓고

테너, 바리톤, 피아노버전으로 구스타프 말러의 "지상의 노래"를,

이스라엘리 소프라노 첸 라이스와 슈베르트, 도니제티의 이태리가곡을,

담라우, 이반 팔라이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마티나 게덱과 세바스티안 콕과는 로버트 슈만의 "미르테" 25 번중 "노래와 편지"를 CD 로 내놓아 그의 피아노영역을 넓혀나갔다.

현재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음악아트대학과 뉘른베르그 음악 아카데미에서 교습하고있다.